STATE OF NEW YORK | EXECUTIVE CHAMBER

ANDREW M. CUOMO | GOVERNOR

즉시 배포용: 2013년 9월 20일

CUOMO 주지사, 뉴욕의 재향군인, 과거 전쟁포로, 그리고 미국 전쟁포로/실종자 군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다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 POW/MIA 공로 인정의 날(Recognition Day)을 맞이하여 한 때 전쟁포로(POW)였던 미군과 전투 중 행방불명된 군인(MIA) 그리고 그 가족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기 위해 잠시 묵념하였습니다. 오늘은 전쟁 시 포로가 되었거나 돌아오지 못한 용감한 육군과 해군, 공군과 해병대를 기리는 날입니다.

"오늘 우리는 전쟁 시 포로가 되었거나 돌아오지 못한 용감한 군인들을 기리며 그분들을 추억하고자 합니다"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. "1차 대전 중 142,000명의 미국인들이 잡혀서 POW로 억류되었습니다. 이 분들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용맹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. 우리는 베트남전에서 아직도 행방불명 중인 뉴욕 출신의 105명의 군요원들과 1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지금도 행방불명 중인 용감한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치르신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이들의 행방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의 모든 영웅적인 군인들께 감사 드립니다."

모든 미국인들은 전장터로 나가서 결코 돌아오지 못한 이 훌륭한 애국주의자들을 예로써 기리고 그 공로를 인정하며 이분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겪고 있을 고통과 슬픔을 되돌아볼 의무가 있습니다. 뉴욕은 미군으로 복무 시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된 모든 미국인들을 기리는 이 연례 기념행사에 참가합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Korean